



특별대담

# 한대수 청주시장

현존 세계최고의 금속활자로 인쇄된 직지를 탄생시킨 청주. 1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며 교육의 도시로 널리 알려진 청주시가 이제 직지를 앞세워 세계 일류도시를 향해 뛰고 있다.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 세계속의 청주를 목표로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한대수 시장을 만나 본다.

# 청주에 '직지' 특구조성

## 세계기록 유산 중심지 육성

제1회 직지상 시상식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는데 그 의미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네스코 직지상은 우리 민족이 세계최초로 금속활자 문명을 개척했다는 증거인 직지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직지와 같은 인류의 훌륭한 유산을 잘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헌한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서 유네스코가 직지란 이름으로 기록유산분야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청주시와 공동으로 제정한 유일한 시상제도입니다. 직지상은 유네스코 191개 회원국으로부터 후보추천을 받아 유네스코의 몇 차례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며 추천과 심사과정에서 세계 각국에 직지의 가치와 위상이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됩니다. 또한 직지상 시상식을 통하여 직지의 가치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국제학술대회, 세계기록유산 세미나 등 기념행사에서 국내·외 석학들이 직지를 연구하고 외국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직지가 인류공동의 유산임을 세계인들에게 인식시키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직지의 고장, 청주에서 직지가 갖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지난 5월 서울디지털 포럼에서 앨 고어 전 미국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혁명은 금속활자 인쇄술에 이어 세계로 전파되는 두 번째 IT혁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금속활자 발명은 지식과 정보를 대량생산하여 보급함으로써 인류문명사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제3의 정보혁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세계사적 발명의 중심에 우리 민족이 있고 청주는 금속활자 주조와 직지를 인쇄한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선조들의 뛰어난 창의력을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여 21세기 새로운 문명을 선도해야 하겠습니다.

**직지세계화를 위하여 노력하신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시장님의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시에서는 지난 1972년

직지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박병선박사에 의해 발견된 후 흥덕사 위치 확인과 고인쇄박물관 건립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직지를 비롯한 고인쇄문화 해외전시와 교류, 국제학술회의, 유네스코 국제자문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보호 훈련워크샵 유치 등 국제적인 노력으로 직지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고 세계인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직지상을 제정하였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세계기록유산 등재일을 직지의 날로 제정하여 직지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직지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직지금속활자가 동서문명의 길을 따라 서양으로 전파된 가능성을 제기하기 위하여 통로선상에 있는 20여개 국의 연구기관과 관련학자들을 취재한 다큐멘터리를 제작·방영을 하였고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에게 직지의 정신과 가치를 교육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14면 분량의 직지와 청주고인쇄박물관을 소개 하였습니다.

청주시는 2004년 직지세계화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직지세계화추진단을 신설하였으며 기본계획을 바

탕으로 직지 간행지인 흥덕사지 주변을 직지문화산업특구로 개발하고 유네스코 국제기구 유치, 기록유산관련 국제회의 개최 등으로 세계기록문화 연구와 교류 전시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차원의 직지세계화 후원단체인 세계직지문화협회와 협조하여 직지를 연구하는 인재양성과 세계화 전략을 마련하는 직지전략연구원을 설립하고 대한민국과 청주가 세계인들과 함께하는 중심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직지의 세계화는 곧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직지의 세계화에 범국민적·범정부적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지문화산업특구를 지정할 계획이신데 특구조성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구구에 규제의 특례를 적용하여 지역경제발전의 새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직지문화산업특구는 직지의 간행지인 흥덕사지 주변을 직지관련 연구, 체험, 관광시설을 집중시켜 직지의 가치를 계승하는 산 교육장이며 관광의 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에 직지 금속활자 주조, 전통한지 제조, 인쇄체험장, 고문서 전시장, 직지광장, 직지거리, 직지공원조성, 유네스코 국제기구 유치, 직지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 직지세계전략연구원 설립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세계기록문화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으며 문

화자산으로서 직지를 현대적인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경쟁력있는 첨단지식산업의 원동력이 되도록 지원·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특구조성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올해 안에 특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흥덕사 복원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민간단체인 흥덕사복원 추진위원회에서 직지의 간행지인 흥덕사 복원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재청 및 대다수 문화재위원들은 원형을 알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므로 차선책으로 흥덕사지는 현 상태로 보존하고 다른 장소에 재현(중창)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지의 날(9. 4)과 대한인쇄문화협회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하는 인쇄문화의 날(9. 14) 행사를 연계하여 범국가적인 행사로 승화시키자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직지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일을 직지의 날로 제정하여 3회째 직지축제를 개최한 바 있는데 아직은 지역에서 3~4일정도 국제학술대회, 금속활자 주조 등 체험행사, 특별 전시행사, 문화공연 등 교육·체험위주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지의 날 행사를 국제적 주요행사로 승격시켜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과 다

불어 직지세계문화엑스포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개최기간도 20일 이상이 될 경우 이미 17회째를 맞이한 인쇄문화의 날 행사와도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서울과 청주에서 역할에 맞는 행사를 개최한다면 전국화와 세계화를 앞당길 수 있는 좋은 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직지를 통한 산업화와 부가가치 창출도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시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계최고의 금속활자로 인쇄된 직지는 관련분야가 광범위합니다.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산업분야는 과학기술, 정보기술, 지식교육,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지를 소재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디지털화함으로써 고부가가치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첨단 지식정보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이미 2001년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식문화산업관련 벤처업체를 지원·육성하고 있으며 향후 직지관련 첨단문화산업도 지원·육성할 계획입니다.

**직지찾기운동 방향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요.**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직지찾기운동본부를 조직하여 관민합동으로 전국적인 직지찾기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는 국내외 주요행사장에 직지홍보관을 설치하여 직지홍보, 직지 체험 및 찾기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해



◀ 직지체험장을 방문해 격려하고 있다.  
▼ 세계직지문화협회 창립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1회 직지상을 시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 교포사회의 주요인사를 직지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민족적 자존심의 직지홍보와 찾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간 한민족 공동 직지찾기 노력도 시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직지찾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지찾기에 공헌하거나 신중한 사람을 포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민들의 직지에 대한 자긍심을 평가해 주십시오.**

청주시는 이미 통인신라시대 서원경이 설치된 역사와 문화의 도시입니다. 고려말 흥덕사에서 세계최고의 금속활자를 주조하여 직지를 간행할 정도의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시민들은 직지의 고장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여 직지축제나 직지관련 행사 시 직접 참여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경제, 사회, 문화단체 등에서도 직지명칭을 경쟁적으로 사용하려는 상황을 보면 시민들의 직지에 대한 높은 자긍심



▲ 본지 유창준 국장과의 대담 모습

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북한과 직지찾기운동, 학술교류 등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계신데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난 7월 북한 평양에서 청주시와 서원대학교,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중국 연변대학교가 3국간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직지의 가치와 중

요성에 대하여 학자들은 알고 있었으며 직지찾기 운동에도 상당부분 공감하였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직지관련 학술회의를 포함시켜 진행하였고 직지찾기 운동에 대하여 한민족공동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향후 3개국을 순회하며 학술교류 행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북한과의 지속적인 학술교류와 직지찾기 운동을 전개하

기 위하여 실천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지역대학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지 이전의 금속활자 인쇄물이 발견될 경우 고인쇄박물관의 위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이미 직지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고 유네스코 직지상이 제정되어 세계인들의 직지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직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유네스코 국제회의 유치, 직지콘텐츠개발, 브랜드 가치 제고, 국제학술대회 등으로 직지에 대한 위상은 상당히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지세계화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직지 이전의 금속활자 인쇄물이 나와도 직지와 함께 한국의 문화적 위상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서양의 구텐베르크 금속활자도 직지 보다 78년이 뒤늦지만 여전히 그 위상은 훼손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세계기록유산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요.**

지난 9월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 기념 행사인 세계기록유산국제세미나(14개국 참가)에서 관련 학자들이 금속활자본 직지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간행지인 청주시에 세계기록유산센터 건립을 제안하는 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제 직지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보편화되고 있는 증거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안은 청주시가 그동안 직지의 세계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며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을 치러내는 과정에서 청주시의 의지를 확인하고 제안된 건 의로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제안은 유네스코의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일인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원과 유네스코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지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고인쇄박물관**



**한대수 시장**은 1944년 충북 청원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를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충청북도 계장, 감사원 감사관, 대통령비서실(행정관), 국무총리 공보비서관, 제천시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냈다. 저서로는 '일류 지방자치의 길'이 있다.

**관의 연구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고인쇄박물관에는 3명의 학예연구사가 근무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력으로는 자료수집, 직지체험 교육, 해외교류 등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인력을 자체적으로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직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고인쇄박물관 관장의 직급을 높이고 전문가가 관장을 맡는 방안과 연구인력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국가적인 전략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직지와 관련하여 관련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쇄는 흔히 그 나라의 문화의 척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IT 선진국이 된 것은 금속활자 발명이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때 인쇄인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직지를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대담: 유창준 국장·사진: 장홍일 기자)